

## 이야깃거리 2

# 정자기증자와 사랑에 빠진 레즈비언 엄마 제시카 쉐어 이야기



외할머니

앨리스, 너희 엄마 제시카의 조부모님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 위에 나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셨지. 그 분들의 성향을 네 엄마 제시카가 다 물려받았어~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봐~

앨리스

... 그러게요 외할머니.

제시카

하하하, 기억나요 엄마. 난 행동하는 것도 할머니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호호.. 우리 앨리스는 날 닮아서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그지, 앨리스?

앨리스

... 그런 것 같네.. 근데...사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어떤 집안에서 컸을지 궁금해요..



# MY REAL DAD?

할머니와 엄마 제시카의 대화를 듣던 앨리스는 조용해졌다. 그 이유는 자신의 50%는 이 집안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다. 앨리스는 아빠가 없이 엄마가 둘 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엄마들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몇 안 되는 레즈비언 커플이었고 앨리스는 두 명의 엄마 중 한 명의 친자녀였다. 앨리스의 친 엄마는 앨리스를 가졌을 당시 박사학위 논문만을 남겨둔 상태였기에 파트너를 대신해 임신을 자처했었다. 그렇게 정자기증자를 찾아 나선 이 커플은 보통 키에 몸무게, 갈색 곱슬머리 문학 전공 작가와 음악가이면서 택시 기사인 남성을 기증자로 택했고, 그렇게 앨리스와 그녀의 여동생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앨리스의 두 엄마는 오랜 갈등 끝에 결국 헤어짐을 택했고 앨리스의 다른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앨리스의 동생만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점점 커갈수록 앨리스는 아이가 여성만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앨리스는 외할머니에게 가족 역사에 대해 들을 때 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분의 아버지가 궁금해졌다.

- 제시카** “오오!! 앨리스, 이것 봐봐! 찾았다 찾았어!!”
- 앨리스** “엄마, 뭘 찾았다는 거예요?”
- 제시카** “네 아빠! 너 아빠의 가계도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들어갔던 DNA 테스트 웹사이트 기억나니? 거기서 아빠를 찾았대!”
- 앨리스** “NO WAY! 진짜로요? 조상에 대해 궁금했는데 아빠를 찾았어요?”

제시카는 자신의 딸인 앨리스의 반쪽, 곧 아빠로 추정되는 이 남성에게 메모를 남겼다. “당신이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왔다는 뜻은 자신을 다른 가족에게 공개할 맘이 있다는 걸로 느껴지네요. 혹시 괜찮다면, 사진을 통해 당신의 자녀에게 인사하고 당신과 당신이 지내온 삶에 대해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애런의  
어머니

애야.. 나는 손주를 보려면 정자기증 은행을  
통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냐?

애런

하하하. 네 맞아요 어머니. 정자기증을 하면  
수입이 제법 되요. 많은 힘 들이지도 않으면서  
택시로 버는 돈에 더 더해서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모르긴 해도 어머님 손주들이 여럿 될  
걸요 아마~? 하하

이때까지 정자 기증을 몇 번 반복하면서 애런은 “진짜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태어났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나랑 닮았으려나?” 이런 질문들이 자주 들렸었다. 우연찮게 티비와 인터넷에서 가계도를 찾아주는 웹사이트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 애런. 그는 오래 전 90년대에 처음 자녀를 찾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음에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발전한 기술을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자신의 DNA 정보를 웹사이트로 보냈다. 한 3주가 흘렀을까?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은 애런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장 웹사이트에 들어갔다.

애런

브라이스? 아들...이네?  
이야.. 내가 아들이 있었어!!

용기를 내어 브라이스에게 연락을 취한 애런에게 브라이스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브라이스가 찾은 애런의 자식이 5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였다. 순식간에 아이가 6명이 된 애런은 어안이 빙빙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다. 아이들과 애런은 그렇게 서로를 알고 연결해 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애런에게 한 메모가 날라왔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니 좀 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한 어머니의 메모였다. 자신의 또 다른 딸인 엘리스와 엘리스의 친모 제시카를 애런은 그렇게 알게 되었다.



제시카는 자기 딸 앨리스와 똑 닮은 애런을 직접 봤을 때 너무 편안함을 느꼈고, 애런도 같은 마음이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십수년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신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딸 앨리스와 애런은 외모 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까지도 닮아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부모와 자식은 이렇듯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성별이 같은 여성을 사랑했던 제시카는 그렇게 딸 앨리스의 생부인 애런이라는 남성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 FAMILY



\*\*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북미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생활터전을 이루어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배경 또는 계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ncestry.com이나 Genealogybank.com 등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는 이런 편안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애런과 앨리스의 이야기처럼) 가장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부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이것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혈연관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 한 가족의 기초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자녀라는 기둥이 세워지고 사랑과 신뢰라는 지붕을 덮으면 그 집은 아주 단단해 질 수 있으니까요.